빛나는 知性의 搖籃, 東國 70年…

東大新聞

發行人 李瑄根
編輯人 鄭允武
主幹 宋赫
編輯部長 文孝根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 交換 ㉾8131~9
本社直通 ㉾8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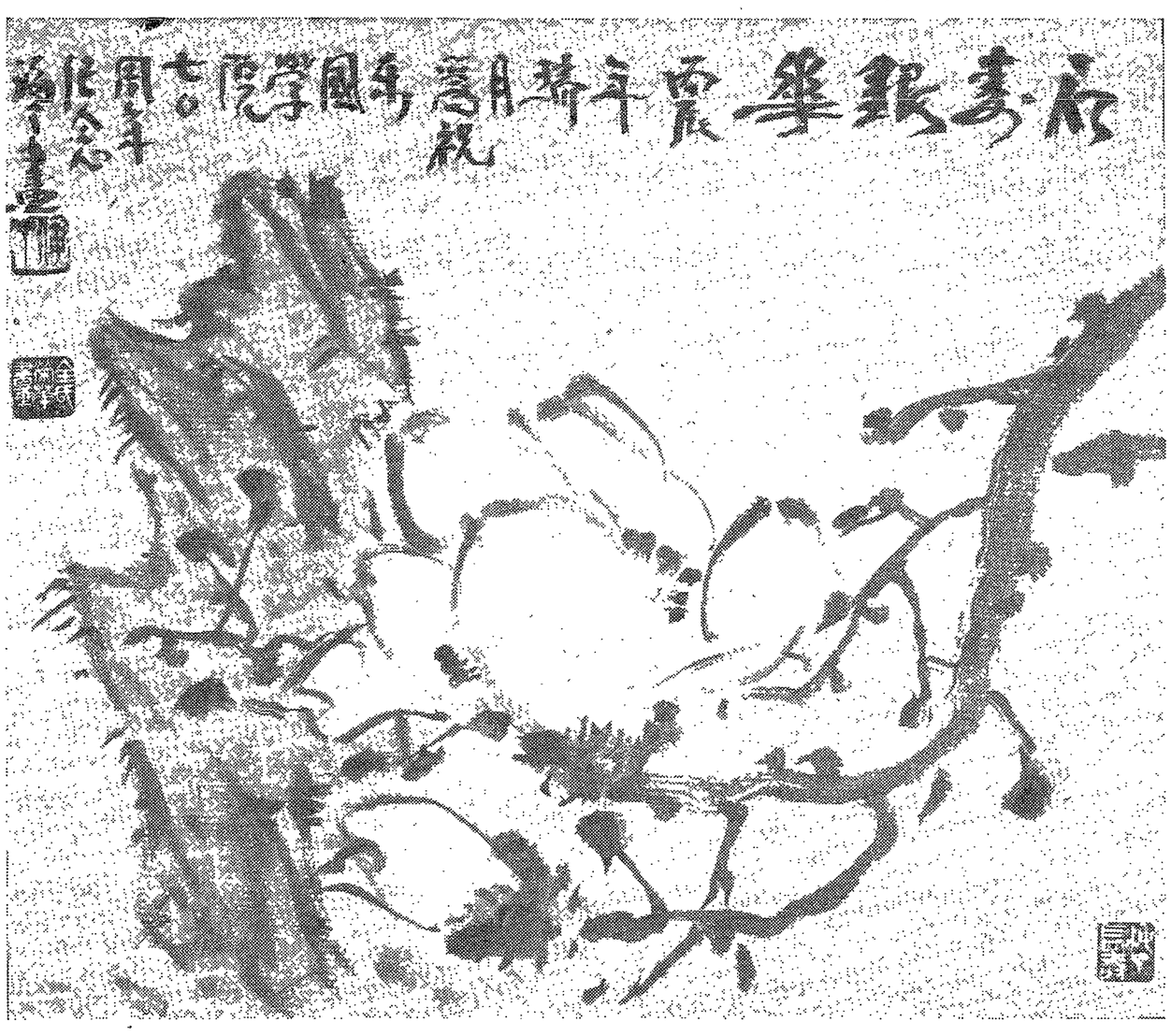
每週火曜日發行

今週一言

時言少求,
行道如法,
除婬恕痴,
覺正意解,
見對不起,
是佛弟子.

경전을 아무리 적게알아도 법을 따라 도(道)를 행하고, 탐심과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어 지식은 정당하고 마음은 해탈해서 이승에도 저승에도 집착이 없으면 그야말로 부처님의 제자이니라.

<法句經>



全榮華 教授 (佛大美術科) 作 「石壽銀華」

眞理의 길을 여는 學問의 뜰

부처님 눈빛속에 모여있거니

韓國佛教의 誓願으로

○…「큰 光明, 큰 智慧, 큰 힘으로 누리에 어둠을 밝히느니…」. 古稀, 학문과 지혜의 古稀. 智慧는 길을수록 그 밝기가 더한 것. 말씀은 거룩한 것이 倫理. 問題이다.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어 있다. 부처님의 탄생지인 印度에는 釋迦의 道人이 살고있다. 말 그대로 빌거벗은 聖者이다. 옷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않고 있다. 더운 땅이어서 시원하게 살려고 벗어부친 것이 아니다. 無所有 처부터 高度로 知能化된 犯罪에 이르기까지 실로 千態萬像이다. 이럴때마다 강조되는 것이 倫理. 音少年들의 非行에 관한 기사가 세속졌다.

○…「큰 光明, 큰 智慧, 큰 힘으로 누리에 어둠을 밝히느니…」. 古稀, 학문과 지혜의 古稀. 智慧는 길을수록 그 밝기가 더한 것. 말씀은 거룩한 것. 이제 東國은 처음으로 門을 열고 다짐한 發願을 온 누리에 펼치며 빛이되고 길이 되리라. 東國에서 부처님의 智慧의 慈悲의 커다란 길을 연것은 1906년 5월 8일, 舊韓國 정부의 허가로 元興寺에 專門學校정도의 明進學校가 빛을 발고 세워졌다. 겔로 1천6백년, 한국佛教史의 바퀴이며 열원의 결실이라 이였다.

아침의 나라, 그 여명의 바람

○…새벽에 새 바람이 동녘으로 불며니, 그 벽바람에 닫을을 울며니, 모든 사람 깨어나네. 바람. 日帝의 폭력바람에 對抗한 여명의 바람. 1922년 中央學林은 3·1運動, 그 평화를 사랑하는 白衣의 행진에 길이 되였다고 日帝의 같은 바람에 門이 닫혔다.

그러나 本校는 길은 잠을 깨우는 남 울음이어야 했다. 1930년 4월7일, 본교가 中央佛教專門學校로 승격되고 다시 1940년 6월8일, 東亞專門學校로 개칭되면서 본교엔 고요한 아침의 發祥, 國文科, 英文科, 史學科로 늘고 東國大學으로 向計가 세워졌다.

學風은 뜨겁고 넝쳘한 코끼리의 짓발로 祖國光復, 열원의 열망을 가리켰으며, 東國의 思想은 日帝의 종말을 예고하는 짓발을 들었다. 1944년 5월, 日帝는 다시 본교를 閉校시켰으나 東亞의 얼은 민족의 가슴에 희망을 심었다. 光復. 祖國光復. 여기서 또 저기서 피어난 민족의 환희.

깊은 잠을 깨우는 勇猛精進

日帝下에선 閉鎖의 아픔도

○…부처님의 미소가빛으로 번진 1906년5월8일. 코끼리의 勇猛精進에 슬기로운 솜씨들 벌룩이던 佛堂, 惹耳時節. 그들의 모든것이 부처님 慈愛로 피상아나느니. 삶은 살아, 삶은 살이 아닌 나이테 없는 우리나이.

빛으로 사랑으로 길을 열어라. 코끼리여. 祝砲를 울려라, 鍾을 울려라.

이제 우리의 뜰에 열매 익는 젊음의 노래가있고 건강한 의욕, 부처님 눈빛 속에 모여 있거니 길을 열어라.

우리의 뜰에 鍾을 울려라

○…부처님의 미소가빛으로 번진 1906년5월8일. 코끼리의 勇猛精進에 슬기로운 솜씨들 벌룩이던 佛堂, 惹耳時節. 그들의 모든것이 부처님 慈愛로 피상아나느니. 삶은 살아, 삶은 살이 아닌 나이테 없는 우리나이.

빛으로 사랑으로 길을 열어라. 코끼리여. 祝砲를 울려라, 鍾을 울려라.

이제 우리의 뜰에 열매 익는 젊음의 노래가있고 건강한 의욕, 부처님 눈빛 속에 모여 있거니 길을 열어라.

숭격, 改編되었다.

1947년에 새로 政治科, 經濟科의 꽃나무가 심어졌고 이어서 1949년 4월 다시 法學科의 꽃나무, 1951년 12월31일 林學科의 꽃나무가 심어졌다.

꽃향기 그윽한 교정에 글 읽는 소리들이 새옷을 입고 연꽃 하나 하나의 꽃잎이 되면 1953년 3·2월6일, 本校는 東國大學校로 最高學部인 綜合大學으로 昇格되면서의 첫해졌다.

開校紀念 頌詩

慶事로다, 님이여

朴 堤 千

님이여
오늘도 당신의 바다에서 풍기는 蓮꽃의 香은
東國大學校 구석구석에 감돌고 있어라
해마다의 學生들이 당신의 바다에서
그들의 흰 코끼리를 거두기
오늘로 70年
새로이 일흔 번째의 흰 코끼리가 불어나
東國大學校를 그의 등에 태운 채
해나 달의 것이 아니어도 밝은
그의 光明을 이 나라 이 누리에 비추고 있어라

慶事로다, 님이여
당신의 크신 아름다움이
가지를 뻗어나가고
뿌리를 네리는
東國大學校에
세상에서 가장 그윽하고 진한 蓮꽃의 香이
구석구석 감돌고 있는 동안
摩耶夫人의 德性을 배우고
摩訶迦葉의 頭陀行을 배우고
阿難尊者의 常侍見聞을 배우는
해마다의 學生들
그 가장 흐뭇한 마음이
그 가장 넉넉한 마음이
그 가장 뚜렷한 마음이
그 가장 참다운 마음이
흰 코끼리로 나타났어라

당신의 永遠 속에선 한날
須臾에 지나지 않는
人間의 古稀
東國大學校의 70年 開校를
永遠으로 줄달음치게 하는 님이여

스스로의 光明으로,
해와 달의 빛과 겨루는
이 일흔 번째의 흰 코끼리는
東國大學校 學生들의 온 마음 온 몸은
님의 기림을 받아
그 아득한 法의 바다에 뛰하는
또 하나의 光明이어라

慶事로다, 님이여

<同門·詩人>

倫理

수리보

불결이 되면 마치 犯罪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犯罪가 新聞紙上에 오르내린다. 音少年들의 非行에 관한 기사가 세속졌다. 모든人間을 福되게 하고 그들을 救濟하기 위해 내 戒律을 깨뜨릴 수도 있다는 大乘的인 倫理意識과는 전혀 다른 倫理意識은 자칫하면 남을 위하는 일은 커녕 자신의 信念마저 흔들려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신이 추상같은 戒行을 지킬때 비로소 남을위한 破戒의 行도 가능해 지는 것이다. 그때 그가 破戒를 하는 것은 그 戒目의 껍질을 어겼을뿐 알맹이는 고스란히 살아있는것이고 그 精神이 바로 남을 위하는 형위로 轉移되는 것이라 믿는다. 한사람 한사람의 이러한 持戒의 倫理行爲가 우리 社會를 밝고 희망찬 것으로 만들것이다.

<李珉容>

倫理

○…그것도 한 宗教의 우리가 그대로 모방한다. 聖스러운 戒律로 그렇게 고 宗教倫理가 社會倫理 를 支配하는 社會로 변되는 점이 많다. 또 기이 확되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간단한 戒 이나 되는 오랜 기간 食, 住의 하나를 부정하 한 條目만이라도 身 非倫理的集團으로 생각한 命을 바쳐 지킬 수있는 다거나 社會倫理法에 위 信行이 절실히 要請되는 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생각된다. 모든人間을 福되게 하고 그들을 救濟하기 위해 내 戒律을 깨뜨릴 수도 있다는 大乘的인 倫理意識과는 전혀 다른 倫理意識은 자칫하면 남을 위하는 일은 커녕 자신의 信念마저 흔들려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신이 추상같은 戒行을 지킬때 비로소 남을위한 破戒의 行도 가능해 지는 것이다. 그때 그가 破戒를 하는 것은 그 戒目의 껍질을 어겼을뿐 알맹이는 고스란히 살아있는것이고 그 精神이 바로 남을 위하는 형위로 轉移되는 것이라 믿는다. 한사람 한사람의 이러한 持戒의 倫理行爲가 우리 社會를 밝고 희망찬 것으로 만들것이다.

<李珉容>

祝

開校 70周年

祝賀합니다 學業과 發展을 빕니다

大韓佛教曹溪宗
宗正 西翁
司書 知訣

□總務院
院長 暎岩
總務部長 月珠
教務部長 云榮
財務部長 月棲
社會部長 慧惺
總務局長 太定
教務局長 慧山
財務局長 善來
社會局長 慈雨

□中央宗會
議長 綠園
副議長 慧淨
〃 光德
事務局長 岩度

□糾正院
院長 慈雲
部長 石翁
糾正局長 玄空
調査局長 在熹

東大의 使命을 새롭게

社說

이른바 「靈肉合一」으로 표현되는 차가울 정도의 純粹한 理性과 이 理性을 바탕으로 하는 高度의 知性 追求만을 자랑하던 大學이 이에만 만족하지 않고 왕철한 활동의 源泉形成으로서의 교육으로 그 價値觀이 바뀌어져 가고있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開校70년의 盛典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 學府가 맞이하는 이 年輪은 그것이 歐美各國뿐 아니라 極東諸國의 大學史에 비추어 보면 결코 오래된 전통을 자랑 할 수는 없는것이나 그래도 國內에서는 屈指의 校史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하여는 누구도 異議가 없을것이다。

그러나 한 大學의 존재가치는 결코 이와같은 그 設立의 久遠함에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보잘것 없는 微少한 이유라도 또 증간적인 展望이 불투적 평가를 받수는 없는 것이다。

어떤 西哲이 『한발물의 이슬을 보아라。그 이슬에도 全宇宙의 造化가 스며있다。』고 하였던 바와같이 비록 그것이 보잘것 없는 微少한 이슬이라도 벌어지기까지는 태양열에서 蒸發 凝結, 冷却같은 모든 육 고통과 人類의 苦難을 救援하고 民族의 光榮을 위하여 그 聖業을 이룩하여 나간 歷代 先輩들의 피나는 努力과 犧牲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聖業은 어느대학에 비하여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이다。하물며우리의 학풍이 우리 人類社會에도 적용되고 있는 限, 근대사회를 먹여주는 西歐文物의 受容에 있어 우리도 추저해서는 안될 것이다。그러기에 本大學도 거의 佛敎敎育만의 學府에서 民族解放과 더불어 商學과 이르기까지 깊은 理論의 開拓과 한 學府로서의 敎育內容을 擴張하는 데 서슴치 않았던 것이나 民族의 傳統文化에 融合된 佛敎精神의 涵養과 그 밖의 점점을 위한 피나는 노력은 오히려 높평을 받아야 한다。最近에 와서 歐美文物의 偏食에서 오는 民族精神의 混亂이 깊어짐에서 現存學園으로 認識되고 白眼視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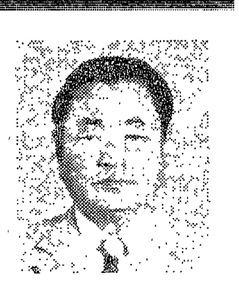
그러나 이와같은 疑惑의 一部層이 있던 原因은 決코 本大學의 연구 풍토를 더욱 심화하고 확대시켜 나갈것을 특히 장조하고자 함이다。

다음으로 본 대학은 앞으로 더욱 더 훌륭한 인재를 계획적으로 교육하여 보다나은 國家社會 건설에 기여해야 하겠읍니다。국가와 사회발전은 모름지기 그것이 보잘것 없는 微少한 이 學府의 끊임없는 努力과 犧牲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民族의 運命이 달려있는 지금의 중간한 이 시기에 東國人은 다시 한번 우리學府가 놓여있는 歷史的 位置와 使命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確信한다。

그것은 慈悲의 숭고한 知育으로 人類의 영원한 平等과 平和를 祈願하는 佛陀의 精神을 實學理念으로 하여 그 基礎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고 韜晦하여 이루어진 수치의 政經과 그리고 開校등의 사실에서 오는 苦難에 찬 전통을 계승하여 이 民族精神의 混亂을 바로잡고 나아가는 것이 開校70年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될것이며 비로소 우리學府의 存在價値를 높이가는 正道인 것으로 믿는다。

辭 長 總



總長·李瑄根

尊敬하는 尹月下 이사장님과 宗國의 高僧大德스님, 內外貴賓 및 東國人 여러분!

오늘 開校70周年紀念日을 맞이하여 나는 同僚 敎授, 職員 그리고 학생들과 더불어 이 慶事스러운 自祝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는 먼저 本校가 開校한 이래, 國家的 社會的인 激動과 苦難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시면서 오늘의 榮光된 대학으로 발전시켜 오신 歷代總長님과 理事長님 그리고 교수, 職員, 同門들에게 衷心으로 敬意의 讚辭를 보내는 바입니다。

일찌기 본교는 自我完成과 衆生濟度의 佛敎精神을 建學理念으로 하여 1906년에 開校하였읍니다。그러나 開校한 직후부터 二國의 쏘라질 속에서 日本帝國主義者와 몬절긴 부쟁을 전개하여 무려 세번이나 强制閉校의 悲運을 겪으면서도 七顧八起하여 왔읍니다。해방후에는 극심한 思想的 混亂에도불구하고 의연히 民族의 正統性을 守護하고 學風을 발전시키는 學園으로서 발전하였읍니다。

저 악랄한 北韓共産集團이 同族相殘의 戰禍을 몰고왔던 6·25동란 때에는 護國佛敎思想으로 분연히 궐기하여 배우던서 조국을 지키는데 身命을 바쳐 文字 그대로 敎育救國의 전당으로 그 정신을 계승하여 왔읍니다。

學敎의 前進

國家發展에 앞장서는 大學

崔載九

<同窓會長>

尹月下이사장님, 李總長님, 敎授, 職員여러분과 高貴하신 學父母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後輩들과 함께 오늘 이 처럼 母校의 開校70周年을 自祝하는 자리에서 3萬同門을 代表해서 祝辭를 드리게 된 것은 참으로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읍니다。新敎育의 歷史가 짧은 우리나라에서 70年의 大學史를 가진 學校가 그 역사의 순간을 기록하는 일이 바로 民族을 敎育하는 일이며 自主와 獨立을 지키는 일임을 깨달으게 셨읍니다。더우기 民族精神의 主軸이며 佛敎精神에 立脚하여 敎界의 淨土로서 開校를 본 母校야말로 民族의 興望에 부응하는 길이며 自主와 獨立을 지키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이였읍니다。

그동안 우리 母校는 日帝의 압박하고 執拗한 간섭과 탄압을 받아 廢校의 비운까지 겪으면서도 혹은 校名을 개칭하고 혹은 숨겨 개편하여 오다가 광복후 1953년 종합대학교인 東國大學校로 승격개편, 韓國 글자의 대학으로 발전하여우리나라 불교문화·불교철학연구의 중심도장이됨은 물론, 人文, 社會, 自然科學의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전도적大學으로서도 도약·발전하였음은 내외 공인하고 있읍니다。

「東大」에서 배출한 3만을 헤아린 많은 인재들이 각계각층 분야에서 지대한 中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우리들은 지난 70년동안 이 母校가 있음을 누구나 知悉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國內外情勢를 살피건데 民族의 가일층의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敎育에 必要한 모든 方便을 아낌없이 총동원하여야 합니다。

全人的 人間養成을 위하여 敎育에 필요한 唯一的, 唯物的인 一切 支援態勢를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設立者인 佛敎宗國은 大學의 敎育에 附隨되는 모든 要請에 最善을 다하여 協助하고 있읍니다。앞으로도 名門私學의 번창을 위하여 信心으로 護念할것 입니다。

셋째로 大學의 使命은 智慧의 伸張에 있읍니다。無明한 마음으로 一生을 산다는것은 個人의 不幸만이 아니라 國家的 不幸을 초래합니다。大學의 使命은 곧 智慧를 長養하는 것이며 그것은 理性의 開眼을 의미합니다。理性의 극대화는 佛敎精神의 生命이며 그 實踐은 敎育을 통하여 연마된 지성인 敎育을 통하여 연마된 지성인의 학고한 가치관의 구현으로 빈문에서 풍요가 약속되는 것입니다。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슬기와 용기도 바로 敎育의 힘에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학문의 세계는 超政治, 超國家的인 것이지만 학문을 연구하고 배우는 이는 國家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우리 東國大學校는 민족의 정통성에 입각한 國籍을 초월한 敎育理念을 더욱 강화하여 굳건한 조국애와 國土愛에 기초한 확고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本上의 命題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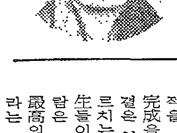
친애하는 東國人 여러분!

우리 東國은 自己의 국가의 운명을 육성하는 최고의 전당이었으며 불멸된 國論을 불교정신으로 통합하는 정신적인 원천이였읍니다。나는 이와같이 자랑스러운 정신적 전통을 계승하여 앞으로 우리 대학을 학문을 통하여 東國의 영광된 中興을 성취하고 국가발전의 대열에 앞장서서 참여하는 대학이 될 것을 확고한 信念과 의지로 표명하며 이 70주년의 式典에서 결의해야 하겠읍니다。

오늘 감사패를 받으신 歷代總長과 勳親, 勳務표창을 받으신 교수, 직원여러분 공로표창을 받으신 졸업생여러분께 衷心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本校의 영광과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祝辭

人類社會의 奉仕者 되라



朴琪宗

<總務院長>

수많은 頑學巨匠들이 배출되어 東國의 전통을 紹絹히 빛내어 주셨읍니다。그러나 아직도 흡족하지 못한 부분을 더욱 補强하여 그 質的 量的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世界的인 수준을 향하여 一路도 쉴새없는 전진을 계속해야 될 줄 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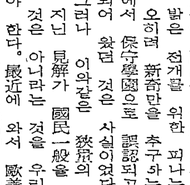
宗敎가 人間의 충실에 목적을 둔다면 敎育은 인격의 完成을 목적으로하는바 그 귀결은 일치합니다。그럼으로 가르치는 敎授님이나 배우는 學生들이나 다 이 東國의 요람은 佛陀精神을 바탕으로 한 最高의 이상적인 敎育道場이라는 긍지와 사명을 가져야 하겠읍니다。

東國의 健兒 여러분은 이 같은 긍지속에서 深奧한 學問과 高潔한 인간의 진리를 닦아 修業을 마치고서는 國家와 人類社會를 위하여 보다 충실하고 보람찬 방사에 이바지해야 합니다。國家社會의 번영을 위하여 그 礎石이 되고 棟樑이 되는 俊才의 배출을 간곡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東國의 발전을 위하여 物心兩面으로 노고하여주신 社會의 有志와 學內의 敎職員 여러분의 그 크나큰 功勞에 깊이 감사합니다。그리고 또한 社會의 축적에 東國의 품에서 나날이 자라고있는 未完成의 大器 東國兒여러분을 부쳐 밝은 光明이 내리시어 씩씩하게 성장함을 衷心으로 기원하며 이것으로 祝辭에 가름합니다。感謝합니다。

祝辭

人類社會의 奉仕者 되라



朴琪宗

<總務院長>

수많은 頑學巨匠들이 배출되어 東國의 전통을 紹絹히 빛내어 주셨읍니다。그러나 아직도 흡족하지 못한 부분을 더욱 補强하여 그 質的 量的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世界的인 수준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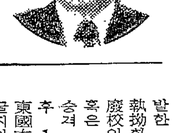
宗敎가 人間의 충실에 목적을 둔다면 敎育은 인격의 完成을 목적으로하는바 그 귀결은 일치합니다。그럼으로 가르치는 敎授님이나 배우는 學生들이나 다 이 東國의 요람은 佛陀精神을 바탕으로 한 最高의 이상적인 敎育道場이라는 긍지와 사명을 가져야 하겠읍니다。

東國의 健兒 여러분은 이 같은 긍지속에서 深奧한 學問과 高潔한 인간의 진리를 닦아 修業을 마치고서는 國家와 人類社會를 위하여 보다 충실하고 보람찬 방사에 이바지해야 합니다。國家社會의 번영을 위하여 그 礎石이 되고 棟樑이 되는 俊才의 배출을 간곡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東國의 발전을 위하여 物心兩面으로 노고하여주신 社會의 有志와 學內의 敎職員 여러분의 그 크나큰 功勞에 깊이 감사합니다。그리고 또한 社會의 축적에 東國의 품에서 나날이 자라고있는 未完成의 大器 東國兒여러분을 부쳐 밝은 光明이 내리시어 씩씩하게 성장함을 衷心으로 기원하며 이것으로 祝辭에 가름합니다。感謝합니다。

祝辭

開校70周年에 부쳐



閔俊植

<全南大總長·同門>

오늘 東國大學校 開校70週年을 記念하기 위하여 設立者인 宗國의 高僧大德과 大學의 역사를 創造하시면서 대학과 함께 살아오신 敎職員, 同門, 그리고 在學生이 자리를 같이한 이 뜻깊은 式典에서 나는 衷心으로 慶祝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대학은 名門 私學으로서 또한 佛敎人이 設立한 韓國 唯一의 完立大學으로서 장목의 발전을 위하여 진심으로 부처 닫게 된것을 진심하여 감사하옵니다。

韓末 開化의 물결이 용솟음칠때, 우리 佛敎界의 先覺者이신 洪月初大師께서 1906年 東大門밖 元興寺에서 明進學校를 設立하여 僧俗을 에게 新文化의 敎育에 必要한 方便을 아낌없이 총동하여야 합니다。

全人的 人間養成을 위하여 敎育에 필요한 唯一的, 唯物的인 一切 支援態勢를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設立者인 佛敎宗國은 大學의 敎育에 附隨되는 모든 要請에 最善을 다하여 協助하고 있읍니다。앞으로도 名門私學의 번창을 위하여 信心으로 護念할것 입니다。

셋째로 大學의 使命은 智慧의 伸張에 있읍니다。無明한 마음으로 一生을 산다는것은 個人의 不幸만이 아니라 國家的 不幸을 초래합니다。大學의 使命은 곧 智慧를 長養하는 것이며 그것은 理性의 開眼을 의미합니다。理性의 극대화는 佛敎精神의 生命이며 그 實踐은 敎育을 통하여 연마된 지성인의 학고한 가치관의 구현으로 빈문에서 풍요가 약속되는 것입니다。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슬기와 용기도 바로 敎育의 힘에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학문의 세계는 超政治, 超國家的인 것이지만 학문을 연구하고 배우는 이는 國家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우리 東國大學校는 민족의 정통성에 입각한 國籍을 초월한 敎育理念을 더욱 강화하여 굳건한 조국애와 國土愛에 기초한 확고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本上의 命題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東國人 여러분!

우리 東國은 自己의 국가의 운명을 육성하는 최고의 전당이었으며 불멸된 國論을 불교정신으로 통합하는 정신적인 원천이였읍니다。나는 이와같이 자랑스러운 정신적 전통을 계승하여 앞으로 우리 대학을 학문을 통하여 東國의 영광된 中興을 성취하고 국가발전의 대열에 앞장서서 참여하는 대학이 될 것을 확고한 信念과 의지로 표명하며 이 70주년의 式典에서 결의해야 하겠읍니다。

오늘 감사패를 받으신 歷代總長과 勳親, 勳務표창을 받으신 교수, 직원여러분 공로표창을 받으신 졸업생여러분께 衷心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本校의 영광과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古稀·도약의 分水嶺

슬기롭게 대처하자

崔載九

<同窓會長>

적부터 우리의 젊은이를 교육하는 일이 바로 民族을 敎援하는 길이며 自主와 獨立을 지키는 일임을 깨달으게 셨읍니다。더우기民族精神의主軸이며 佛敎精神에 立脚하여 敎界의 淨土로서開校를 본 母校야말로 民族의 興望에 부응하는 길이며 自主와 獨立을 지키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이였읍니다。

그동안 우리 母校는 日帝의 압박하고 執拗한 간섭과 탄압을 받아 廢校의 비운까지 겪으면서도 혹은 校名을 개칭하고 혹은 숨겨 개편하여 오다가 광복후 1953년 종합대학교인 東國大學校로 승격개편, 韓國 글자의 대학으로 발전하여우리나라 불교문화·불교철학연구의 중심도장이됨은 물론, 人文, 社會, 自然科學의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전도적大學으로서도 도약·발전하였음은내외 공인하고 있읍니다。

「東大」에서 배출한 3만을 헤아린 많은 인재들이 각계각층 분야에서 지대한 中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우리들은 지난 70년동안 이 母校가 있음을 누구나 知悉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國內外情勢를 살피건데 民族의 가일층의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敎育에 必要한 모든 方便을 아낌없이 총동원하여야 합니다。

全人的 人間養成을 위하여 敎育에 필요한 唯一的, 唯物的인 一切 支援態勢를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設立者인 佛敎宗國은 大學의 敎育에 附隨되는 모든 要請에 最善을 다하여 協助하고 있읍니다。앞으로도 名門私學의 번창을 위하여 信心으로 護念할것 입니다。

셋째로 大學의 使命은 智慧의 伸張에 있읍니다。無明한 마음으로 一生을 산다는것은 個人의 不幸만이 아니라 國家的 不幸을 초래합니다。大學의 使命은 곧 智慧를 長養하는 것이며 그것은 理性의 開眼을 의미합니다。理性의 극대화는 佛敎精神의 生命이며 그 實踐은 敎育을 통하여 연마된 지성인의 학고한 가치관의 구현으로 빈문에서 풍요가 약속되는 것입니다。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슬기와 용기도 바로 敎育의 힘에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학문의 세계는 超政治, 超國家的인 것이지만 학문을 연구하고 배우는 이는 國家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우리 東國大學校는 민족의 정통성에 입각한 國籍을 초월한 敎育理念을 더욱 강화하여 굳건한 조국애와 國土愛에 기초한 확고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本上의 命題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東國人 여러분!

우리 東國은 自己의 국가의 운명을 육성하는 최고의 전당이었으며 불멸된 國論을 불교정신으로 통합하는 정신적인 원천이였읍니다。나는 이와같이 자랑스러운 정신적 전통을 계승하여 앞으로 우리 대학을 학문을 통하여 東國의 영광된 中興을 성취하고 국가발전의 대열에 앞장서서 참여하는 대학이 될 것을 확고한 信念과 의지로 표명하며 이 70주년의 式典에서 결의해야 하겠읍니다。

오늘 감사패를 받으신 歷代總長과 勳親, 勳務표창을 받으신 교수, 직원여러분 공로표창을 받으신 졸업생여러분께 衷心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本校의 영광과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理事長 告辭

重喜尹·長事理

願力·方便·智慧의 발휘를

오늘 東國大學校 開校70週年을 記念하기 위하여 設立者인 宗國의 高僧大德과 大學의 역사를 創造하시면서 대학과 함께 살아오신 敎職員, 同門, 그리고 在學生이 자리를 같이한 이 뜻깊은 式典에서 나는 衷心으로 慶祝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대학은 名門 私學으로서 또한 佛敎人이 設立한 韓國 唯一의 完立大學으로서 장목의 발전을 위하여 진심으로 부처 닫게 된것을 진심하여 감사하옵니다。

韓末 開化의 물결이 용솟음칠때, 우리 佛敎界의 先覺者이신 洪月初大師께서 1906年 東大門밖 元興寺에서 明進學校를 設立하여 僧俗을 에게 新文化의 敎育에 必要한 方便을 아낌없이 총동하여야 합니다。

全人的 人間養成을 위하여 敎育에 필요한 唯一的, 唯物的인 一切 支援態勢를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設立者인 佛敎宗國은 大學의 敎育에 附隨되는 모든 要請에 最善을 다하여 協助하고 있읍니다。앞으로도 名門私學의 번창을 위하여 信心으로 護念할것 입니다。

셋째로 大學의 使命은 智慧의 伸張에 있읍니다。無明한 마음으로 一生을 산다는것은 個人의 不幸만이 아니라 國家的 不幸을 초래합니다。大學의 使命은 곧 智慧를 長養하는 것이며 그것은 理性의 開眼을 의미합니다。理性의 극대화는 佛敎精神의 生命이며 그 實踐은 敎育을 통하여 연마된 지성인의 학고한 가치관의 구현으로 빈문에서 풍요가 약속되는 것입니다。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슬기와 용기도 바로 敎育의 힘에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학문의 세계는 超政治, 超國家的인 것이지만 학문을 연구하고 배우는 이는 國家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우리 東國大學校는 민족의 정통성에 입각한 國籍을 초월한 敎育理念을 더욱 강화하여 굳건한 조국애와 國土愛에 기초한 확고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本上의 命題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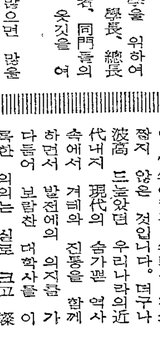
친애하는 東國人 여러분!

우리 東國은 自己의 국가의 운명을 육성하는 최고의 전당이었으며 불멸된 國論을 불교정신으로 통합하는 정신적인 원천이였읍니다。나는 이와같이 자랑스러운 정신적 전통을 계승하여 앞으로 우리 대학을 학문을 통하여 東國의 영광된 中興을 성취하고 국가발전의 대열에 앞장서서 참여하는 대학이 될 것을 확고한 信念과 의지로 표명하며 이 70주년의 式典에서 결의해야 하겠읍니다。

오늘 감사패를 받으신 歷代總長과 勳親, 勳務표창을 받으신 교수, 직원여러분 공로표창을 받으신 졸업생여러분께 衷心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本校의 영광과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願力·方便·智慧의 發揮를

開校70周年에 부쳐



歷大東의 昨日과 意志, 前進의

序言

우리 東國大學校는 이제 開校 70年을 맞게 되었다。開校以來 이 大學은 護國의 요람으로 名門私學으로서의 地位를 유지하면서 英才를 배출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지난날의 숭고성이나 지금의 位置에만 만족할 수는 없다。우리는 지금보다 發展된 東國을 建設하기 위하여 前進을 할 수 있는 潛在的 또는 顯在的 能力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기초로 本校가 80年에 있을 수 있는 또 있어야 할 像을 생각해 보는데 그치기로 한다。그리고 거기에 제시되는 것들은 公式化된것이 아니며 하나의 可能性일 뿐이다。

歷史와 指標

지금의 東國大學校는 1906年에서부터 由來된다。당시 韓國 佛敎界의 先覺者들이 菩薩國政府의 인가를 받아 師範學校程度의 明進學校를 설립하여 護國의 人材를 양성하기 시작한데서부터 비롯된다。

開化期에 건립된 本校는 日帝治下에서 中央佛敎專門學校, 東化專門學校등으로 이름을 바꾸면서도 갖은 試練을 극복하여 民族私學의 名門的 地位를 굳혀왔다。解放後 東國大學으로 改名昇格한 뒤 戰亂과 여러 어려운 고비를 겪으면서도 많은 英才를 배출하여 民族社會와 人類社會發展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歷史的 傳統에서 우리 東國大學이 지니는 몇가지 性格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우리 東國大學校는 순수한 우리民族의 先覺者와 財產으로 설립된 民族私學이라는 점이다。둘째, 우리 東國大學校는 佛敎精神에 입각하여 敎育하고 硏究하는 기관으로 設立된 宗立大學이라는 점이다。

세째, 우리 東國大學校는 世界속의 大學의 地位를 차지하는 綜合大學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性格中에서도 중요한것은 둘째의 性格이다。따라서 우리 大學校는 규를 달리하기 지니는 一般的 性格과는 다른 佛敎精神을 한마디로 말해서 智慧와 慈悲에 의거한 人間의 自我完成과 佛國淨土의 理想社會를 건설하려는 思想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므로 本校의 모든 교육과 연구는 마음의 올바른 修練을 통한 主體性의 自覺에 기초한 「自我完成」과 여기서 솟아나는 의욕과 헌신적인 「社會奉仕」의 姿勢를 확립케 하고 能力을 啓發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指向을 기초로 하여 本校는 學術의 깊은 理論과 넓고 정교한 應用方法을 敎授하고 연구하며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人間形成으로 國家와 民族 및 人類社會에 기여시키려는데 교육의 指標를 두고 있다。

試練과 前進의 能力

우리나라의 모든 私立大學이 그러하지만 우리 大學校도 적지않은 挑戰要因과 試練을 극복하면서 발전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試練을 外生的인 것도 있고 內生的인 것도 있겠는데 극히 중요한 몇가지 試練을 여기에 제시함으로써 발전의 방향과 관련된 사고의 도움을 주기로 한다。

첫째, 私立의 綜合大學들이 급속한 발전을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10年동안 本校의 발전도 비약적인 평창을 하고 그 私學들이 기초로 한 外形的인 발전을 꾀한 뒤에 質的인 側面으로 발전의 방향을 돌림으로써 外面과 內面의 充實化가 진행되고 있다。國內 私立大學의 급속한 質量的 伸張은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考慮要素가 되는 것이다。

세째, 雄大한 綜合大學으로 발전할 때 지금의 校地가 限界性을 갖는다는 점이다。

10년後 本校學生의 數를 약 1萬名으로 추산할 때 지금의 校地는 비록 位置的으로 市內中心이라는 우리한 입장에 있기는하나 校地의 협소함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그러므로 現在의 校地를 전제로 하는 發展計劃의 樹立은 큰 제약을 받는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네째, 他大學보다 學科當 定員數가 적어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敎育費 施設投資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 學科當 定員數에 있어 市內綜合大學中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그에 따라 교육 및 施設投資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그럼 수요는 더체로 學科가 基礎單位로 되기 때문이다。또한 學科當 定員數가 적을에 따라 財源도 적어진다。그리하여 科當定員數가 적은 우리는 二重的인 財政損失을 보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는 시련을 생각해 보았거니와 그러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궁정적 요인도 충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宗國, 財團, 敎授와 학생 그리고 同門들은 本校에 대한 確信과 희망에 찬 의욕과 未來에의 가능성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總和의 推進力」이 형성되어가고 있는 것이다。無關心에서 벗어나 적극적 參與意識을 나타내보여 前進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것이다。그리고 그것을 끌 거대한 推進力이 될 것이다。

세째, 外部에서 本校의 底力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發展을 지향하는 意志와 推進力이 최근에 크게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佛敎精神은 한마디로 말해서 智慧와 慈悲에 의거한 人間의 自我完成과 佛國淨土의 理想社會를 건설하려는 思想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므로 本校의 모든 교육과 연구는 마음의 올바른 修練을 통한 主體性의 自覺에 기초한 「自我完成」과 여기서 솟아나는 의욕과 헌신적인 「社會奉仕」의 姿勢를 확립케 하고 能力을 啓發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指向을 기초로 하여 本校는 學術의 깊은 理論과 넓고 정교한 應用方法을 敎授하고 연구하며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人間形成으로 國家와 民族및 人類社會에 기여시키려는데 교육의 指標를 두게 될 것이다。

以上과 같은 敎育의 정신과 指標를 실천적인 것으로 하기위해서 本校는 「硏究와 敎育」「人間關係」「生活」에 따르는 각각의 實踐的인 行動論理를 가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모든 本校의 發展計劃은 이러한 理想을 향한 끊임없는 「努力」을 통하므로 生活의 기본적인 實踐原理로 삼을 만 하다。

이렇게 本校는 대학이 지니는 一般的 性格에 우리만이 지니는 特殊的 性格과 敎育의 정신및 行動論理를 더함으로써 社會에 기여시켜

開校70周年紀念 特輯

大學의 機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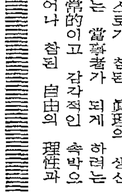
스스로가 大學을 牛骨塔이라 부르는 심각한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수……○
학의 집합관계에서 보듯 社會와 大學은 어느것이 어느것의 部分集合은……○
될수없다. 社會라는 一般집단속에 도타른 社會로서 자리해오는 작지만……○
영향력있는 社會一, 大學의機能은 오늘날 어떻게 변모되 가고 있는……○
가. 개교 70周年特輯으로「社會변천과 大學의 機能」을 다룬다. ……○
<編輯者註>……○

大學理念과 歷史

大學의 理念과 自由에 根據해야

플라톤, 大學理念에 決定的影響

學問의 「宇宙的統一」志向



金鎔貞 〈哲學科敎授〉

1、요람의 시대와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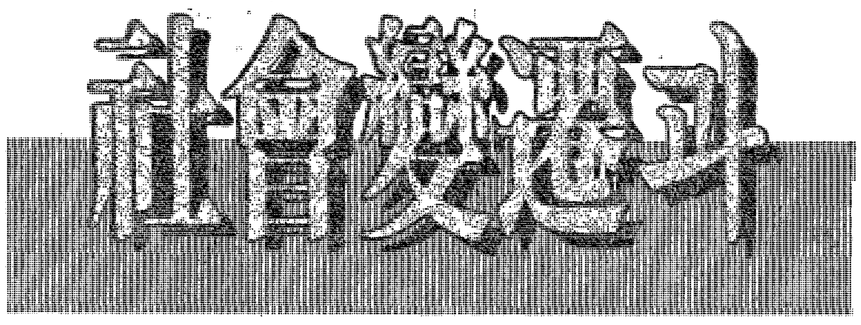
「우리들을 學問에 더한 사랑, 藝術에 더한 사랑, 自由에 더한 사랑을 그리스에서 배웠다。더우기 이것들을 生命의 源泉과 聯關되어 유기적인 統一을 이루고 있다。西歐는 그리스精神과의 생생한 접촉에 의하여 우리들이 進步라고 부르는 저 재로운 强力한 추진력을 얻었다」

이 陳述은 부처(S. H. Butcher. Some Aspects of the Greek Genius 3ed. (1904))의 말이다。실상 西歐人들은 그들의 학교는 그리스이고 그리스人의 학교는 페리클레스가 말한 바와 같이 아테나이라고 確信하게 말한다。그리나 돌이켜 보건대 아테나이人의 학교는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를 그 範型으로 볼수있다。

플라톤은 그의 國家論에서 인류역사상 최초로 定式化된 커리큘(敎科課程)에 의한 교육과정을 제안하였다。그의 敎育課程에 의하면

第1단계, 幼年期로부터 17세까지의 주요한 敎科는 體育(gymnastike)과 文藝(mousike)였다。실상 西歐人들은 그들의 학교는 그리스이고 그리스人의 학교는 페리클레스가 말한 바와 같이 아테나이라고 確信하게 말한다。그리나 돌이켜 보건대 아테나이人의 학교는 플라톤

開校70周年紀念 特輯



○…… 급변하는 現代社會—. 오늘과 내일이 틀리는 지식의 폭발 시대에 大學의
○……責任과 使命도 당연히 달라져 가고있다. 學問과 眞理探究라는 本來的大
○……學의 理念에서 최근 技能人양성기관으로 전락해간 느낌마저 드는 大
○……學의 機能을 무엇인가. 최고의 엘리트 양성기관으로 여겨지던 大學
○……이 量的으로 무수한 學士들을 배출하면서 그 권위와 고고한 위치
○……는 붕괴되어가고, 敎育目標조차 확고히 서지못한 立場으로 대학인

아직도 敎育課程·目標 不分明

裵鍾根 〈師範大 敎授〉

I

敎育이란 社會的 產物이다。社會가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에 따라 敎育(大學)의 性格과 樣相을 달라 진다。

現代社會는 知識을 渴求한다。지식에 대한 渴求는 인류의 本能的 欲求요 어느時代 어느 社會이든 이것을 追求하지 않는 社會나 인류는 없었다。그런데 오늘의 사회는 그 지식의 渴求는 과거 어느 시대의 사회보다 强烈하다。첫째, 知識量에 대한 갈구이다。오늘 세계의 知識量의 4分의3은 2차대전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다。또한 1945년 이전에 가진 인류의 지식을 1㎝의 높이라면 1945년 이후 인류가 所有한 知識의 높이는 5m로서 知識量은 5百倍의 增加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見解도 있다。

둘째는 지식의 眞門的 深化이다。過去에는 지식의 進化는 몇 世紀에 한번 나타나는 天才에 크게 依存되었다。그만큼 전문지식을 要求하는 社會的 必要와 需要가 餘裕가 있었던 것이다。그러나 오늘의 사회는 과거의 天才에 의하여 마련된 理論·技術의 파영효과가 擴散되어 이를 보다 深化·發展시키기 위하여 高度로 眞門化된 集團的인 知識人群의 需要를 切迫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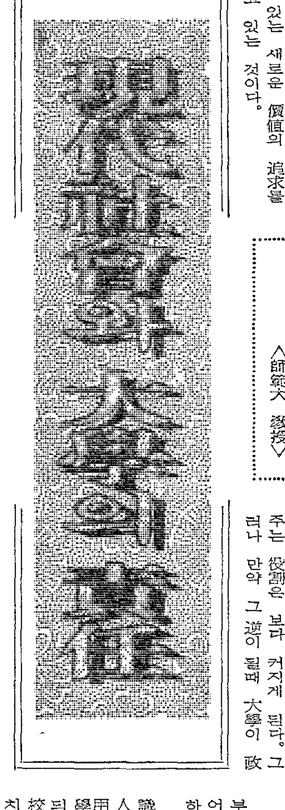
첫째는 지식의 急激한 變化이다。10년前에 새로운 이론과 기술이 오늘에 와서는 낡은것으로 退化된다。아인슈타인의 相對性原理는 오늘날 심각한 挑戰을 받고 있다。오늘의 1分의 變化量은 1世紀전의 1분의 1보다 훨씬 빠르다는 見解도 있다。이와같은 지식의 急激한 變化는 어제의 眞門家가 오늘의 非眞門家로 轉落하고 어제의 非專門家가 오늘날의 젊은 전문가로서 행세하는 知識轉位 現象은 擴大되어 새로운 知識의 習得은 競爭的으로 보다 치열해지고있는 것이다。

現代社會는 새로운 價値觀을 希求한다。오늘의 사회가 과거의 것을 총분히 만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늘의 社會的 渴求는 곧 大學을 學問의 殿堂이라는 保障도 없이 무조건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渴望은 人間의 無限한 知識을 試驗은 決코 人間의 知的遊戲였으며 人類福祉를 위하여 큰 도움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독을 끼치게 되었다。技術의 발달은 人間의 生活을 便利하게 해주었다。그러나 그 결과 인간은 文明과 機械의 노예가 되어 代替文化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이러한 現代는 人間의 진실한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價値의 追求를 渴望하고 있는 것이다。

II

現代社會는 文化의 大衆化를 渴求한다。과거에는 文化가 소수 特殊階級의 獨占物로서 享有되고 문화의 斷層이 존재하였다。그러나 오늘의 사회는 이와같은 문화의 斷層을 허용할 수 없다。社會構成員의 政治·經濟및 社會的 參與의 意識의 融合위에서 存立할 수 있기때문이다。이러하여 文化의 開放化 共存化 大衆化는 보다 提進되며 또 結果 교육에 대한 大衆化및 普通化의 要求는 强烈해지게 된 것이다。

大學은 오랫동안 學問의 殿堂으로서 神聖視되어 왔다。그러나 現代社會의 知的渴求는 大學을 學問의 殿堂이라고만 存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새로운 課題를 부여하고 있다。



첫째 現代社會의 知的渴求는 大學에게 「知識을 위한 知的探究」이 아니라 社會를 위한 知的探究」를 社會의 知識探究의 中心으로서 부여하고 있다。知識探究의 蓄積, 分析, 解釋에 있어서의 形, 그리고 創造의 役割을 擔當하는 生産的社會組織을 大學의 國家經濟的 中心으로서의 比重을 더한다。마헐럽(F. Machlup)은 美國에 있어서 知識産業이 國家의 富의 蓄積에 貢獻한 몫은 全體의 29%이며 그중 40%는 敎育機關에서 擔當하고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이것은 大學이 한 社會의 經濟成長에 적어도 15%의 貢獻을 하고 있음을 反證하는 것이다。

知識産業으로서의 大學은 社會政治는 國民의 政治參與(直接 또는 間接)를 特徵으로 하여 存立하며 國民의 政治意識의 昇華를 招來하는데 必須的인 要因이 된다。高等敎育을 받는 사람일수록 政治에 대한 關心의 意識이 높아지며 政治意識을 가진 大學人口가 많아질수록 政治的 中立地帶의 幅이 넓어져 政府와 國民의 政治的 距離를 調整하는 政治社會化努力이 확대된다。

이러한 面에서 大學의 政治發展에 주는 役割은 보다 커지게 된다。그러나 만약 그 役割이 필요 以上 大學이 政治的 渦中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大學은 社會政治에 대한 重要한 機能을 가지고 있다。그것은 物理的 힘의 장소에서라기 보다 客觀的인 여건의 변화(발전)에 따르는 자연적세로 파악된다。여러가지 요인이 지적될 수 있겠으나 우리大學은 光復 四半世紀에 대체로 質이 도외시된 量的인 팽창만을 거듭한 歷程을 체험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그것이 낳은 결과가 곡부정적인 면으로만 기울 것은 아니였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客與面에서 갖가지 混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見解도 있다。

첫째로 大學의 이념을 근대적인 大學의 理念으로 개선 해야 하겠다。敎育은 價値實現을 위한 실천노력이다。이 가치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理念이 다를 것이며 이 理念에 따라 敎育活動의 구조가 결정될 것이다。오늘날의 大學은 「象牙塔」이 아니고 社會的인 要求에 대한 大衆化및 普通化의 「봉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바다。그것은 개인과 社會의 교육에 대한 요청에 답할 수 있는 대학이며 社會로부터의 비판과 그 건설적인 협력에 길을 틀 개방된 大學이며, 公共的 대목적인 지침을 받는 동시 學問研究를 통하여 社會에 봉사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른바 「열려있는 大學」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 속에서는 大學이 갖는 國家的 民族的 사명에 대하여 투철한 반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우리는 경제적 성장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으로 빈곤의 타파하고 文明社會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식과 경제의 힘을 가져야 하겠다。그런 의미로 우리의대학은 국가적 단위에서, 전체적인 안목에서 각자 부과된 특수 사명을분명히 하고 그것으로 시대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또 동떨어 편화 (발전) 에 따르는 사회의 대응을 시작했고 점차로 대학존재의 質的인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그러한 일부 意識의 발동이 지나친 官權간섭의 형태로도 나타나 그것으로 시비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동떨어 편화 (발전) 에 따르는 사회의 대응은 대학의 존립을 위한 불가결한 요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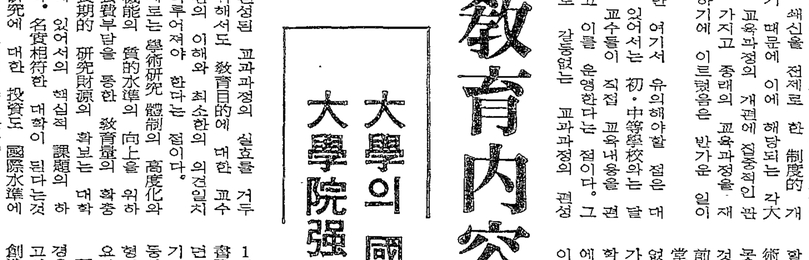
둘째로는 교육내용의 혁신과 충실화이다。해방 4반세기동안 「왕성한敎育熱」을 다룰 나라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量的膨脹」을 거듭하게 되었다。이러한 것은 物理的 힘의 장소에서라기 보다 客觀的인 여건의 변화(발전)에 따르는 자연적세로 파악된다。그것은 개인과 社會의 교육에 대한 요청에 답할 수 있는 대학이며 社會로부터의 비판과 그 건설적인 협력에 길을 틀 개방된 大學이며, 公共的 대목적인 지침을 받는 동시 學問研究를 통하여 社會에 봉사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른바 「열려있는 大學」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 속에서는 大學이 갖는 國家的 民族的 사명에 대하여 투철한 반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우리는 경제적 성장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으로 빈곤의 타파하고 文明社會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식과 경제의 힘을 가져야 하겠다。그런 의미로 우리의대학은 국가적 단위에서, 전체적인 안목에서 각자 부과된 특수 사명을분명히 하고 그것으로 시대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또 동떨어 편화 (발전) 에 따르는 사회의 대응은 대학의 존립을 위한 불가결한 요청이다。

둘째로는 교육내용의 혁신과 충실화이다。해방 4반세기동안 「왕성한敎育熱」을 다룰 나라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量的膨脹」을 거듭하게 되었다。이러한 것은 物理的 힘의 장소에서라기 보다 客觀的인 여건의 변화(발전)에 따르는 자연적세로 파악된다。그것은 개인과 社會의 교육에 대한 요청에 답할 수 있는 대학이며 社會로부터의 비판과 그 건설적인 협력에 길을 틀 개방된 大學이며, 公共的 대목적인 지침을 받는 동시 學問研究를 통하여 社會에 봉사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른바 「열려있는 大學」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 속에서는 大學이 갖는 國家的 民族的 사명에 대하여 투철한 반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우리는 경제적 성장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으로 빈곤의 타파하고 文明社會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식과 경제의 힘을 가져야 하겠다。그런 의미로 우리의대학은 국가적 단위에서, 전체적인 안목에서 각자 부과된 특수 사명을분명히 하고 그것으로 시대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또 동떨어 편화 (발전) 에 따르는 사회의 대응은 대학의 존립을 위한 불가결한 요청이다。

둘째로는 교육내용의 혁신과 충실화이다。해방 4반세기동안 「왕성한敎育熱」을 다룰 나라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量的膨脹」을 거듭하게 되었다。이러한 것은 物理的 힘의 장소에서라기 보다 客觀的인 여건의 변화(발전)에 따르는 자연적세로 파악된다。그것은 개인과 社會의 교육에 대한 요청에 답할 수 있는 대학이며 社會로부터의 비판과 그 건설적인 협력에 길을 틀 개방된 大學이며, 公共的 대목적인 지침을 받는 동시 學問研究를 통하여 社會에 봉사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른바 「열려있는 大學」인 것이다。



敎育內容·方法 刷新

大學의 國家民族的 사명 再發見
大學院强化·財源확보에 公費도

金秉玉 〈師範大 敎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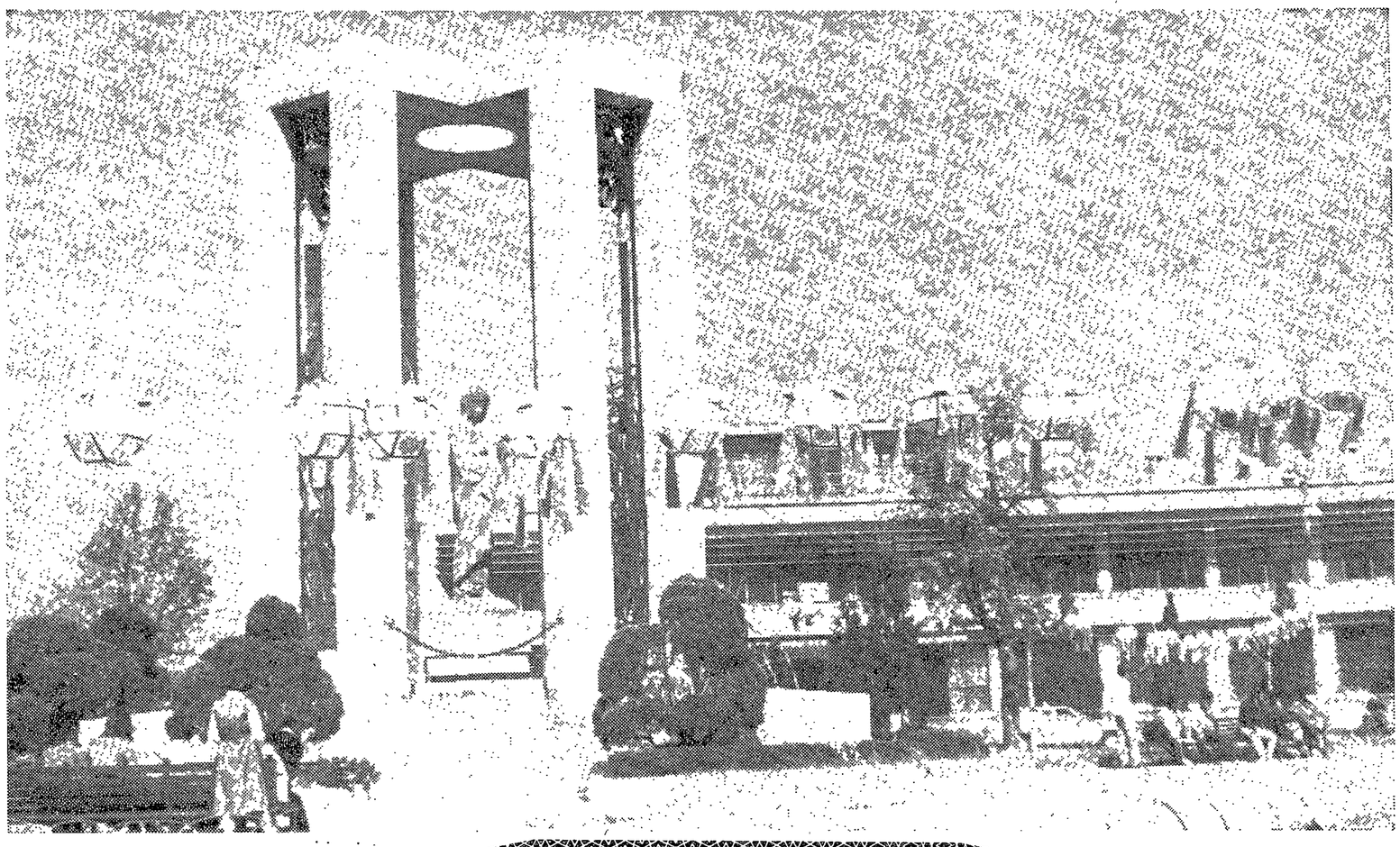
전국적으로 자그만치 60여개교 (육수 대학원 포함) 에 併設되어 있으며, 7804學科에 6000여명의 학생을 가졌다는 大學院 敎育은 기실 國家社會의 소의의 大學當局의 무성의로 有名無實한 한갓 대학의 사치적 유물로 전락하고만 감이 없지 않다。國家는 이것을 學部의 附屬機關으로 보의시하고, 社會는 大學院의 存在의 필요조차 모르며, 학교 경영자는 收支가 안 맞으니 석사학급을 없애야 한다。이러한 관료인지라 권위있는 專任敎授나 변변한 연구시설 등 제반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재료와 유영방법을 배워 나오는 학생들을 대학원 과정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1년동안에 配定되는 일과안되는 각 단대별로 나눠쓰다보면 新聞과 雜誌를 구독하는데 그치기 일쑤이고 外國의 新刊 專門圖書의 구입은 모두지 바랄 수 없는 형편이니 석사학급을 통한 理想과 現代를 융합하여 敎育의 質的 向上을 위한 연구시설을 원조하여 대학원과정의 충실화를 신중하게 검정하여 재정과 시설을 원조하며 대학원답게 육성시키든지, 아니면 國立이라도 좋으니 綜合獨立大學院大學을 창설하여 국가의우수한 학생들을 모아 풍부한 학비를 원조하여 연구 修學에 몰두하게 하고 이 들을 지도할 수 있는 國外의 업적있는 교수와 연구가를 초빙하여 교육과 연구에 전념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한 하는 것이다。

大學敎育은 民族과 國家의 再發見으로 승화되며 비로소 대학의 責任은 완수되는 것이다。이러한 大學敎育의 理念을 實現하기 위해서는 當局뿐만이 아니라 敎授들의 부철한 使命感과 강인한 研究意志가 전제되어야 하며, 아울러 풍부한 知識에 바탕을 둔 우수한 敎授陣容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敎育의 基本施設과 研究는 이러한 專任敎授나 변변한 연구시설 등 제반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재료와 유영방법을 배워 나오는 학생들을 대학원 과정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1년동안에 配定되는 일과안되는 각 단대별로 나눠쓰다보면 新聞과 雜誌를 구독하는데 그치기 일쑤이고 外國의 新刊 專門圖書의 구입은 모두지 바랄 수 없는 형편이니 석사학급을 통한 理想과 現代를 융합하여 敎育의 質的 向上을 위



智慧와 慈悲의 길 여신 「부처님 오신날」

現代社會와 佛教

과거功績보다 미래적意義를 나와너는 同體化돼야

〈佛教大學長·哲博〉 洪庭植

불교가 이 나라에 전하여 온지도 벌써 1천 大백餘年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다。그동안 불교는 이 겨레에게 삶의 참다운 의미를 마음속깊이 일깨워 주었고, 찬란한 文化와 藝術을 창조하였으며,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때마다 그 국가적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데에 큰 공헌을 하였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그 뿐만이 아니다。불교는 이 겨레에게 自由와 平和를 사랑하고 平等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다시 말하면, 불교는 이 겨레의 피가 되었고 살이 되어 온 것이다。

이와 같이 불교가 이 나라 이겨레의 역사위에 끼친 영향은 지대한 것이다。이 지대한 歷史上의 공헌은, 불교의 이나라 이겨레는 둘이야 될수 없게하여 오늘에 이르렀다。이러한 역사적 사실만을 가지고도 불교의 敎祖이신 부처님의 오신날은 우리나라 이 민족의 國慶日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지난날의 역사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오늘날의 의의를 삼을 수는 없다。

아무리 지난날의 공헌이 크고 또 훌륭하였다하여도 오늘날에 있어서 지난날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에로 눈길을 돌리지아니하면 안된다。

부처님의 敎說은 참으로 浩瀚하고 심원하여, 불교를 한마디로 이렇다 할 것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그러나 불교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正覺의 내용을 바탕으로하여 전개된 종교요 신앙임에는 틀림이없다。부처님이 깨달으신 正覺의 내용은 緣起說이라고 말하여도 무방할 것이다。연기설을 깨달음에 의하여 체득되어진 부처님의 世界觀 또는 人生觀이기도 한 것으로 부처님은 이 緣起思想을 근간으로 하여 중생을 가르치셨고 지도하신 것이다。

緣起說을 흔히 相依說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것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어떠한 것도 孤立獨存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緣起說의 골자라 할 것이다。그러하기에, 나와 너, 이것과 저것이 緣起說의 원리속에서는 들어 필 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세상의 모든 존재는 自他가 一如요 彼此가 同觀가되는 것이다。

이처럼, 나와 남이 둘이 아닌 自他一如의 사상이 불교의 근본된 가르침이요 또 나아가서는 이것이 바로 불교의 人生觀이며 世界觀인 것이다。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모습을나타내신 것은 중생들에게 이러한 人生觀과 이러한 世界觀을 일깨워주고 가르쳐 주기 위할이라고하여 좋을 것이다。

주장하는 것이 緣起說의 골자라 할 것이다。그러하기에, 나와 너, 이것과 저것이 緣起說의 원리속에서는 들어 필 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세상의 모든 존재는 自他가 一如요 彼此가 同觀가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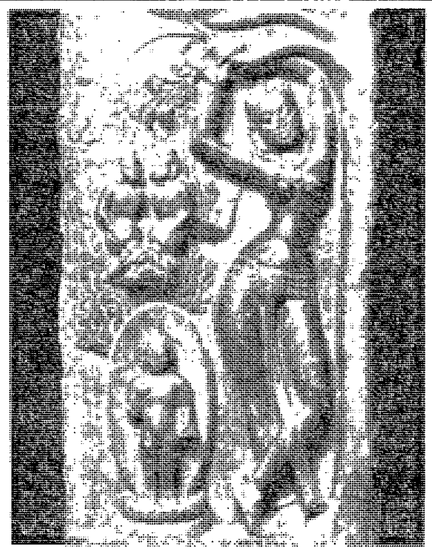
이처럼, 나와 남이 둘이 아닌 一如의 생활자세가 일반화되고 보편화됨에, 현재 사회의 병폐가 말끔히 사라진 깊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이요, 또한 오늘 우리가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진정한 뜻도 될것이다。

부처님 오신날의 의의는 이러한 의의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볼이 마땅하지 않을까。

일찌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에 의하면 이같은 人生觀과 世界觀에 수순하여, 참다운 삶을 사는 길은, 자기의 자유의 我執을 버림으로서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다。그러한데도 오늘날 우리의 사회현실은 어떠한가。지나친 자기본위의 我執으로 인하여, 나 자신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을 소중하게 생각할줄 모르는 풍조가 팽배하게 되었고, 그러한 추악한 풍조의 만연은 바로 현대 인간사회를 병들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만일 그렇다면 불교의 근본사상인 緣起說을 바탕으로 하는 人生觀또는 世界觀이 그 어느때보다도 오늘날이 가장절실하게 요망되는 時代라 하겠다。

너와 내가 同體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 一如라는, 그러한 생활태도가 보편화됨에 따라 사회의 병폐가 사라진 깊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이요, 또한 오늘 우리가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진정한 뜻도 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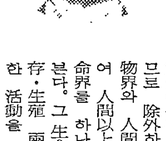
부처님 오신날의 意義



◇마야부인과 誕生한 釋迦。
<네팔의 博物館所藏>

四次元的 緣起世界에서 본 釋迦聖誕

探照·創造·人間發展의 源泉 四次元的 緣起世界서 出現



李鍾益 〈佛大敎授〉

「사카」族 카필라 王國의 왕비 「마야」婦人은 어느날 기이한 꿈을 꾸었다。여섯개의 이를 가진 흰 코끼리가 왕비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이었다。이 때부터 왕비는 태기가 있었다。그 胎夢은 아들을 낳게 될 꿈이라고 하여 사람들은 흥분한 王子가 태어 날것을 기대하였다。산월이 가까와 지자 「마야」부인은 나라의 풍습대로 해산을 위해 친정인 콜리城으로 길을떠났다。늦은봄 화창한 날이었다。

룸비니동산의 無憂樹아래

카필라와 콜리의 경계에 있는 룸비니동산의 아름다운 풍경은 마야부인 일행을 그곳에서 잠시 쉬어 가기로 했다。마침 가까운 곳에 無憂樹꽃이 활짝피어 있었다。마야부인은 아름다운 꽃가지를 만지려고 오른손을 뻗쳤다。그 순간 갑자기 산기를 느꼈다。일행은 곧 나무아래 휘장을 쳐 産室을 마련했다。마야는 옥동자를 낳았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라는 뜻에서 그 옥동자의 이름을 〈싯다르타〉라고 지었다。

장막속의 神아닌 역사속의 人間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지 2천 5백20년。그가 살았던 생애는 80년에 불과하지만 그가 끼친 영향은 세월이 더할수록 밝아지고 있다。그는 불교라는 한종교의 창시자이기에 앞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몸소 체험하고 그 自覺을 전한 최초의 인간이다。생명과 존재의 실상을 깨닫고 지혜와 자비의 길을 열어보인 구도자였다。그는 신비의 장막에 가려진 神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 안에 살았던 인간이었다。그가 일찌기 이 지상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살았다는 사실은 우리를 모든 인간의 보람이 아닐 수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은 B.C 563년 4월 8일이라고 전해지고 있다。그러나 이 날짜는 확실한 것은 아니다。

부처님의 탄생을 축복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아홉마리의 용이 내려와 향수를 뿜어 목욕을 시켜주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부처님은 탄생하자 곧 일곱걸음을 걸으시고 사방을 둘러보시고 한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손은 땅을 가리키시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고 외치셨다고 한

8日 開校70周年紀念式거행

오전 10時 體育館서

勤務·勤續 敎職員 13名 表彰
歷代總長·理事長등에 功勞牌

開校70周年 기념식이 오는 8일 오전10시 體育館에서 거행된다。이날 기념식에는 李瑄根總長, 尹喜重理事長을 비롯하여 내외귀빈 다수와 敎授, 學生이 참석한 가운데 本校를 위해 장기간 근속및 근무한 敎授, 敎職員에 대한 표창과 歷代 理事長, 總長, 同窓會長, 學長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게 된다。

기념식은 三跪九叩頭에 이어 연혁보고, 總長식사, 이사장 고사, 축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교수및 교직원가운데 표창자는 20년근속자 1명, 20년근무자 2명, 10년근속자 9명, 10년근무자 1명등 총13명인데 이들에게는 理事長으로부터 표창장과 총장상패및 부상이 주어진다。

또한 本校발전에 기여한 歷代이사장11명(追敍3명) 학장3명(추서2명) 총장7명(추서2명) 동창회장2명등 총21명에게 공로패가 수여된다。

◇창기근속·근무자명단

▲金基院(체육관장·20년근무) ▲吳正權(교무과장·20년근속) ▲張淳燁(일반과장·20년근속) ▲洪鍾祿(입학과장·20년근무) ▲康敬哲(교수·10년 근속) ▲金東益(同窓會부장·〃) ▲徐敏正(〃·〃) ▲朴性夏(〃·〃) ▲林錫珍(〃·〃) ▲李鎭昇(〃·〃) ▲孫喜雄(〃·〃) ▲朴漢宗(〃·〃) ▲金鍾雲(〃·〃) ▲蔡鳳涉(〃·〃) ▲朴曉洙(〃·〃) ▲金田珠(〃·〃) ▲歷代學長=許允(追敍) ▲金東華(〃) ▲歷代總長=禪相弼(추서) ▲金法麟(추서) ▲白性郁(〃·〃) ▲鄭泳石(〃·〃) ▲崔鳳燁(法政大學長)(〃·〃) ▲田國柱(〃·〃) ▲洞鎭模(공대교수·〃) ▲姬(행정대학원교무과·10년근무) ▲高永鎭(농두과수위·10년근속) ▲李英鐵(농두과수) ▲具滋元俊(사대교수·〃) ▲閔丙奭(법정대학장 김정현(정외·5)—花郎精神, 생활화의 새 指導理念 ▲禪武部(체육부소속)=지도교수 정우제(體敎科) 회장 ▲同窓會長=徐敏正(52·法·변호사) ▲同窓會 功勞者 ▲金東正(52·法·변호사) ▲尹天泳(65·農·동창회장 무궁장) ▲文泰植(48·전문·亞洲產業(주)사장) ▲金聖涉(53·경제·대한모방(주)사장) ▲金準錦(53·경제·共興產業(주)사장) ▲閔容植(49·경제·일우해운(주)대표이사) ▲柳根昌(49·전무·원호처장) ▲鄭在哲(52·정치·產銀부총재) ◇모범근무 표창자 명단 ▲이태윤(수위장) ▲김진영(수위) ▲박덕양(동신문) ▲이재풍(경비원) ▲박동권(군보요원) ▲김명래(청소부) ▲황순남(전화교환수) ▲김한종(학생과장, 최근 생활화의 새 指導理念 ▲禪武部(체육부소속)=지도교수 정우제(體敎科) 회장 ▲同窓會長=徐敏正(52·法·변호사) ▲同窓會 功勞者 ▲金東正(52·法·변호사) ▲尹天泳(65·農·동창회장 무궁장) ▲文泰植(48·전문·亞洲產業(주)사장) ▲金聖涉(53·경제·대한모방

開校70돐에 부치는 詩

맑고 밝게 솟아라

兪漢根

거대한 뿌리 바람 타지 않으리
말솜 이전의 소리 스러지지 않으리
거룰진 마을밭 뿌리 내리리

南山 솔하 깊숙히 해아기 살려라。
바라보아 눈 부시지 않는 마을
결려 걸려 갈앉는 精水로
이끼 같아 손 녹 벗겨

만져보아 페이지 않게 속살 태우며
메아리 메아리에 조금석 눈 드며
바람과 먹물어 해아기 살려라
바람 속에서 해아기 크리라。

東뜬기슭에 꽃나무 뿌리 내리다
바람은 늘 세차 하루 넉내
벌근 꽃잎 꽃비 날려
이 광홀 흔들어도

모래알 속에서 햇살을 트들하 듯
그 녀 실어 빛내는
여덟개의 바퀴살
산 넘어 넘어 바다 전리。

늙지 않는 해아기
제속의 불씨여
蔡態화 唐帝의 불꽃이여
당신 서 계시는 이 자리를
서서히 솟아라

맑고 밝게 올라라
몸 빛은 속살태우는 당신이여
몸 벗은 당신이여
젊어 있어라, 젊어있어라。

〈文理大·國文科〉

나의 搖籃, 빛나는 東岳

開校 70周年에

金熙哲

나의 學校가 開校 70周年을 맞았다。그러나우리들의 생각을 「東大」라는 學校의 起源을 아주 아득한 옛날-70년이 아니 7百年前으로 생각하고 있다。그런 우리 學校라면 틀림없이 傳統이 있다。그것도 시간 보이는 것이 아닌 그 깊이가 바다 같고 그 歷史가 아득한 아주 먹

나의 搖籃, 빛나는 東岳

開校 70周年에

金熙哲

나의 學校가 開校 70周年을 맞았다。그러나우리들의 생각을 「東大」라는 學校의 起源을 아주 아득한 옛날-70년이 아니 7百年前으로 생각하고 있다。그런 우리 學校라면 틀림없이 傳統이 있을 것만 같다。

『東大가 傳統으로 네게 물려준것이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선뜻 대답을 못한다。그러나 무언가 뚜렷하고 육직한 傳統이 있을 것만 같다。

傳統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者는 바보다。어떤 傳統을 물려 받으려는 마음가짐 자체는 그 전통에 대한 모독이며 그 傳統을 상실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個人의 지속적인 努力과 진지한 자세가 바로 傳統을 물려 받는 것이 아닌 傳統을 자기 자신에서 찾아내 자기화하는 것이다。선배나 남에게서 傳統을 찾지말고 자기자신에게서 찾아야할 것같다。그리면 저절로 傳統의 흐름위에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한가지는 「學東國」의 맥락을 계속, 아니 발전시켜갔으면 하고 東大 스포츠의 도약을 빌어 본다。

開校時부터 大衆을 先導하던 東國文學이 왜문단進出에도 허덕이는가? 文學은 그래보다 혼탁한 現代社會가 더 잘구하고 있다。그런데도 東國人은 왜 文學을 통한시하고 있는가? (자학성에 限한일이지만) 나는 우선 個人의 재질이나 학교의 분위기보다는 傳統을 자기화하는데 대해 學生들의 努力이 부족한데서오는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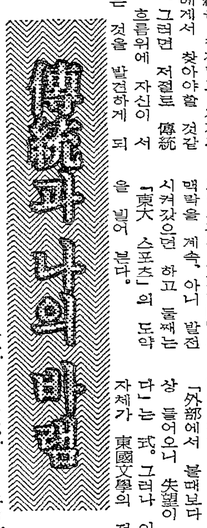
그한가지는 「學東國」의 맥락을 계속, 아니 발전시켜갔으면 하고 東大 스포츠의 도약을 빌어 본다。

이런 역지에 불과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傳統이 있을 것만 같다。

『東大가 傳統으로 네게 물려준것이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선뜻 대답을 못한다。그러나 무언가 뚜렷하고 육직한 傳統이 있을 것만 같다。

傳統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者는 바보다。어떤 傳統을 물려 받으려는 마음가짐 자체는 그 전통에 대한 모독이며 그 傳統을 상실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個人의 지속적인 努力과 진지한 자세가 바로 傳統을 물려 받는 것이 아닌 傳統을 자기 자신에서 찾아내 자기화하는 것이다。선배나 남에게서 傳統을 찾지말고 자기자신에게서 찾아야할 것같다。그리면 저절로 傳統의 흐름위에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한가지는 「學東國」의 맥락을 계속, 아니 발전시켜갔으면 하고 東大 스포츠의 도약을 빌어 본다。



金熙哲

傳統과 나의 距離

金熙哲

나의 學校가 開校 70周年을 맞았다。그러나우리들의 생각을 「東大」라는 學校의 起源을 아주 아득한 옛날-70년이 아니 7百年前으로 생각하고 있다。그런 우리 學校라면 틀림없이 傳統이 있을 것만 같다。

『東大가 傳統으로 네게 물려준것이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선뜻 대답을 못한다。그러나 무언가 뚜렷하고 육직한 傳統이 있을 것만 같다。

傳統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者는 바보다。어떤 傳統을 물려 받으려는 마음가짐 자체는 그 전통에 대한 모독이며 그 傳統을 상실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個人의 지속적인 努力과 진지한 자세가 바로 傳統을 물려 받는 것이 아닌 傳統을 자기 자신에서 찾아내 자기화하는 것이다。선배나 남에게서 傳統을 찾지말고 자기자신에게서 찾아야할 것같다。그리면 저절로 傳統의 흐름위에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한가지는 「學東國」의 맥락을 계속, 아니 발전시켜갔으면 하고 東大 스포츠의 도약을 빌어 본다。

金熙哲

숲아나는 그늘, 古稀

權五煇

金熙哲

傳統과 나의 距離

金熙哲

나의 學校가 開校 70周年을 맞았다。그러나우리들의 생각을 「東大」라는 學校의 起源을 아주 아득한 옛날-70년이 아니 7百年前으로 생각하고 있다。그런 우리 學校라면 틀림없이 傳統이 있을 것만 같다。

『東大가 傳統으로 네게 물려준것이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선뜻 대답을 못한다。그러나 무언가 뚜렷하고 육직한 傳統이 있을 것만 같다。

傳統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者는 바보다。어떤 傳統을 물려 받으려는 마음가짐 자체는 그 전통에 대한 모독이며 그 傳統을 상실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個人의 지속적인 努力과 진지한 자세가 바로 傳統을 물려 받는 것이 아닌 傳統을 자기 자신에서 찾아내 자기화하는 것이다。선배나 남에게서 傳統을 찾지말고 자기자신에게서 찾아야할 것같다。그리면 저절로 傳統의 흐름위에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한가지는 「學東國」의 맥락을 계속, 아니 발전시켜갔으면 하고 東大 스포츠의 도약을 빌어 본다。